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극적 합의

노사민정협의회 파행 끝 '광주글로벌모터스조기안정화' 의결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을 노사민정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3차 본회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조기안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 지원을 의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사업이 법인登記 시한 4일을 앞두고 노사민정 협의회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았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조기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부속서 포함)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에 관한 유일한 합의사항'이며 '이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고 협의회는 적극 뒷받침한다'고 합의했다. 협의회는 '투자협약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 제기돼 법인의 조기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애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 선임과 노동이사제 등의 안건에 반발해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에도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파행 위기에 처했으나 노사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오전 10시 57분쯤 노동계가 참여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노사민정 협의회 의결안은 이날 열릴 예정인 주주간담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예정이다. 주주간담회에서 의결안이 통과되면 합작법인 등기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노동계가 노사민정 회의에 불참한 것은 현대차가 지난 1월31일 협정서에 들어있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현대차가 그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민정 협의회 안의 의결된 만큼 9월23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동구 "자산유원지서 가을 만끽하세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원지 고객감사 가을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산유원지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사)자산유원지상인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통기타 가수 주권기, 트로트 가수 유미랑, 이혜주 등의 축하공연에 이어 지역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주민들이 직접 구수한 입담으로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우리동네 자랑대회', 참여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상품을 탈 수 있는 '즉석노래방 이벤트' 등 부대행사가 풍성하다.

서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광주 서구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서구 관련 공공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신청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남구, 유적지 탐방 토요 문화체험 학교 대장정

광주 남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과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주말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인 '토요 문화체험 학교'를 운영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토요 문화체험 학교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3개 기수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수별 참가자 40명은 각기 다른 주제로 광주와 전남지역에 소재한 역사문화 현장을 돌아보고 체험 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화 농산물로 상품을 만드는 이색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북구, 2020년 생활임금 10,353원으로 결정

광주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지급액을 10,353원으로 확정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10,353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지급 10,353원은 올해 기준사급 대비 2.60%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763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17년 광주시가 개발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한 금액으로 매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와 실제지출 방식을 고려해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광산구, 평생학습 놀이축제 놀이광산 스택업 개최

21일 광주 광산구가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평생학습 놀이축제 '놀이광산 스택업(stack up)'을 개최한다. '놀이학습으로 재미·상상·웃음을 깨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광산구 평생학습 11개 동아리와 9개 행복학습센터의 연합으로 꾸며지는 축제의 장. 이날 행사에서 2013년부터 음악줄넘기, 보드게임 등 광산구 양성 '꿈에 뽀짝 지도사' 동아리들은, 11개의 체험활동을 선보인다. 송정·평동 등 9곳의 평생교육 거점공간인 행복학습센터는 센터 활동 전시와 8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도자·종이·가족 등 8개 분야 '공예명장' 공모

10월 14~25일 접수...선정되면 증서·500만원 수여

전남도가 '공예명장' 선정을 위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예명장은 도자, 유리·석, 금속, 목·죽세, 종이, 섬유, 가족 등 총 8개 분야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 대상은 15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남도 공예대전에서 동상 이상, 또는 전국 공예품대전

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다만 동일 분야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거나,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휘장 및 명장패(현판), 장려금 500만원 등이 주어진다. 공예명장 신청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남도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도자 4명, 목공예 2명, 총 6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했다. 명장들은 전국 공예대전 등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 공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공예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광주시 '빛고을 장병 투어' 실시

타 지역 출신 군인·경찰 대상 진행...호응도 높아

광주시는 18일부터 이틀간 광주에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현역 군인·경찰 장병을 대상으로 2019 제2차 빛고을 장병 투어를 진행했다. 빛고을 장병 투어를 광주·호남권 역사와 전통문화유산, 명소 등을 소개해 광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통합방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차 투어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장병들이 세계 수준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2차 투어에는 31사단, 503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육군포병·보병·공병학교, 시 경찰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 64명이 참가해 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5·18민주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구 충장사 등을 방문했다.



정민권 시 시민안전실장은 "타 지역 출신 장병과 경찰이 군 복무 중 광주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한 장병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더 많은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